

“소화흡수 잘되고, 변상태도 좋아지고... 「리전트」로 바꾸길 참 잘했어요!”

새로나온 고품격 유아식-「리전트」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유아식「리전트」-
안심하고 바꿨습니다.”

아기때 유아식의 선택이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던데
될 망설이었어요. 전 과감하게 「리전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잘 먹을 뿐 아니라, 변상태가 모유를
먹을때처럼 윤고 부드러운게 소화흡수가 잘된다는 걸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리전트」로 바꾸길 참 잘했어요.

- 좋은 유아식은 아기가 아무지고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영양성분이 과학적으로 배합 조정되어야 합니다.
- 아기 키우는 데는 연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아식은 아기과학에 대한 축적된
연구업적을 갖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양분유 임신 육아교실

임신, 육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책자와
선물세트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 서울 365-0171~3

● 전화 지정을 이용해 전국 각 지점으로 연락하세요.

세계최고로 지향하는- **리전트**



신제품

Program

1. 열린 마음, 열린 세상을 위하여

열린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참석자 소개와 인사

열린 마음, 열린 세상을 위하여
슬라이드 상영

함께하는 자리
담소와 만찬

2. 여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랑나눔

인개 / 무인도
정훈희

어둠 속의 절규(Mono Drama)
김지숙

방랑자 / 혼자만의 여행
장필순

What a Wonderful World / My Way
김준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 그래도, 설마하고
임화숙

Spain(Chick Corea)
St. Thomas(Sonny Rolins)
산광음 Jazz Trio

조각배 / 아름다운 강산
이선희

함께 부르는 노래
다같이

이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Profile

'여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랑나눔

“

'여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 '열린 마음, 열린 세상' 공연에 출연해 주신 사회자, 연극인, 가수들 뿐만 아니라 연출 및 여러 분야에서 진행을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여성의 안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공연에 주체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상당소에서는 94년에도 각 분야의 전문인이 중심이 된 '여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열린 참여로 위기관리 후원회 밤 행사를 성황리에 치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음악회/연극/미술전시/문학의 밤 등의 행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 열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 주신 분

연극연출
김지운
(극단<전설> 상임연출, '뜨거운 바다', '무비무비' 연출)
슬라이드 제작
대본구성: 아숙희
녹음: 홍승철(KBS FM PD)
나레이터: 이선희
사진구성: 남창연(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출진행 및 기획
반혜정(본 상당소 총무)

94년 여성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회: 오숙희, 원종배
가수: 김진애, 신형원, 윤선애, 이선희, 임지훈, 정훈희
연극인: 김지숙
개그맨: 서경석, 이윤석
특별출연: 인천 풍물·놀이패 '가차길 앞 공부방'

김준

예그린 악단의 자니브라더스 4중창단, 대형 유자립 등 각 장르의 음악활동과 다양한 음악수련을 통해 개성을 갖춘 재즈 음악가.
작사, 작곡은 물론 음반기획자로 그 영역을 꾸준히 다져가고 있는 Jazz Style 가수.
현재 서울 음악고등학교에서 재즈 음악 및 실용음악을 강의하고 있다.



신광웅 Jazz Trio

신광웅(Piano)
재즈피아니스트, 작곡가, 88올림픽 재즈 축제, 92서울 재즈콘서트, 93년부터 매년 Summer Jazz에 계속 참가했다. 94년 한국예술심연재단재연합회에서 수여하는 94연주대상을 수상, 대표곡으로는 'Land of Morning Calm', '서울의 4계'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신광웅 재즈 피아노 1,2권'이 있다.
임한수(Drum)
아프스 상임 멤버로 다년간 활동, 예음회 비유적 정기공연, 아태원 All That Jazz 정기연주, 91년 Seoul Jazz Train, 93년 한민족 Jazz Festival, 오사카 공연 등 화려한 무대 경력의 소유자.
남영국(Bass)
타고난 천성과 학구적 열의로 감성적이면서도 지성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연주자. 아프스 정기 콘서트, 소극장 및 정기콘서트,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정기 재즈 콘서트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지숙

힘과 정열의 무대를 만들어 내는 타고난 연극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마가씨와 건달들', '당신들의 천국', '모노드라마 로열', 유자립 '연센스' 등 다수 출연, '대통령도 창녀도 될 뻔한 여자' (93년 작품).
현재 극단 <전설> 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홍보출판자문위원.



오숙희

언제나 여성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방송인, 여성학 강사, 작가로서 다양한 면으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생방송 '독점 여성', '남자를 위하여' 등 다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그레, 수다로 풀자'(석필), '부부'(용진) 등을 집필했다.



서기철

KBS 아나운서.
서글서글한 성격과 자신감 있는 멘트로 뉴스진행을 전담해온 진행자.
신문방송학과 출신답게 방송에 대한 집념 또한 남달라서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큰 도약을 꿈꾸고 있다.
최근에는 KBS 2TV 스포츠 뉴스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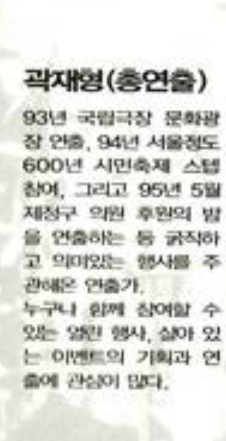
정훈희

인간계로 데뷔.
뛰어난 가창력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명곡들로 기억되는 가수.
대표곡으로는 '인간계', '꽃밭에서', '무인도' 등이 있으며 성목학상담소 개소 이후 크고 작은 행사마다 한번도 거르지 않고 함께해준 사람이 가득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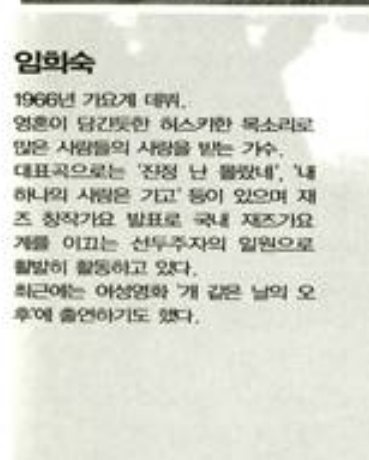
곽재형(출연율)

93년 국립극장 문화광장 연출, 94년 서울정도 600년 시민축제 스텝 참여, 그리고 95년 5월 제창구 의원 후원회 밤을 연출하는 등 공직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주관해온 연출가.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 살아 있는 이벤트의 기획과 연출에 관심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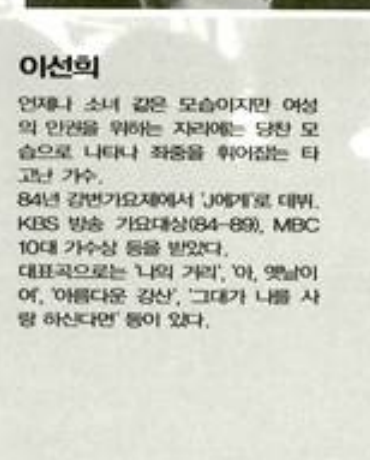
임희숙

1966년 가요계 데뷔.
영혼이 담긴 듯한 허스키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
대표곡으로는 '진정 난 몰랐네',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 등이 있으며 재즈 창작가요 발표로 국내 재즈가요계를 이끄는 선두주자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성영화 개개 날의 오후에 출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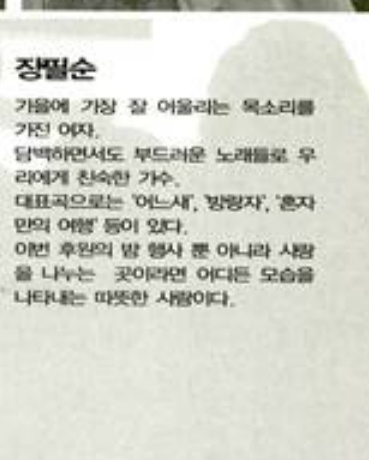
이선희

언제나 소녀 같은 모습이지만 여성의 안전을 위한 자리에는 당찬 모습으로 나타나 좌중을 휘어잡는 타고난 가수.
84년 김민기요제에서 'J'로 데뷔, KBS 방송 가요대상(84-89), MBC 10대 가수상 등을 받았다.
대표곡으로는 '나의 가리', '아, 옛날이여', '아름다운 강산', '그대가 나를 사랑 하신다면' 등이 있다.



장필순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여자.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노래들로 우리에게 친숙한 가수.
대표곡으로는 '어느새', '방랑자', '혼자만의 여행' 등이 있다.
이번 후원회 밤 행사 뿐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면 어디든 모습을 나타내는 따뜻한 사람이다.



마음을 열고 한 자리에서...

박금자 본 상담소 대표이사



추수의 기쁨이 앞서는 11월, 일년 내 정성 들어 키워왔던 앞산 열매와 국수를 거두는 계절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이 좋은 날 같이 한 마음을 열고 한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4년전 그 당시 상담소 총무로 일하고 있던 이미경 씨(후주 유학 중)를 방송출연에서 우연히 만나 '도와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갖고 의료자문에 임했었는데 피해자(대부분 여성)들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 일이 한 여성뿐만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소 일에 동참하다보니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많은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으로 결과보면 작은 규모인 성폭력상담소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상담소는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차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자생적으로 시작된 상담소의 활동은 성폭력위기센터와 열림터의 개설 이래 보다 더 실질적인 내용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정적인 일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담소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이같은 어려움은 피해자 여성들을 돕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보다 실질적인 원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성폭력상담소 특별후원회가 발족되어 각 분야에서 임직에서 활동하고 개신 분들이 동참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저하는 더욱더 열심히 '열린 마음, 열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편 기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언론사, 의사회, 변호사회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담소 안팎으로 열심히 보이지 않는 다수로 도움을 주시는 지킴이, 나눔이들에게도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아편 모임의 취지에 공감하고 가까이 참여해 주신 '여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열림터 '후원의 밤'을 열며...

최영애 본 상담소 소장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작은 터를 마련한 지 어느새 5년이 되어 갑니다. 성폭력 발생을 세계 3위라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8,800여회에 달하는 상담을 통해 수많은 피해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후 30년 만에 처음 털어놓는다고 울먹이던 60대 여성의 청구, 어린 딸이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 강악과 분노로 차를 몰던 어머니의 절망과 슬픔... 이들이 겪는 아픔은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어아없게도 전체 성폭력 피해의 30%가 13세 이하의 어린이이며, 어린이 성폭력의 40%가 친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피해 여성들은 주변사람이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도움이나 격려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의심이나 비난의 눈초리를 받아왔고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 노이로제, 대인관계 기피,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분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깊은 절망과 고통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여성들을 심리, 법, 의료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잃어버린 자존감과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계남 사건, 김보은·김진권 사건,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고 성폭력 예방교육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폭력의 위험 아래 놓여 있는 근친강간 피해자와 성도 감은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매니저인 <열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엄청난 충격으로 아라디 어린 눈망울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던 어린 내담자들이 웃음을 되찾고 마음을 열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열림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열림터를 보다 더 든든하고 열려 있는 장으로 만들어 열림터에서 새로 태어나려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세상'은 성폭력상담소 특별후원회가 열림터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성폭력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가까이 시간을 함께 해준 출연진들과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성폭력 없는 세상, 열린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언제나 자나 저해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역사

- 1991. 4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 1993. 3 사단법인 인가(서울특별시)
- 1993. 12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
- 1994.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담소 등록
- 1994. 12 성폭력 상담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보건복지부)
- 199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열림터 허가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돕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1991년 문을 열었습니다.
- 성폭력전문상담소로서 4년 동안 8천 8백 여회에 걸친 상담을 하였습니다.
- 24시간 위기상담을 받는 <위기센터>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친족성폭력 등 지속적인 피해에 시달리는 여성을 위해 파란치인 <열림터>를 마련하여 새로운 삶을 개화하는 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비디오를 제작하고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알리는 자료집, 소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하여 성폭력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성폭력사업에 대한 성명서, 항의문, 건의문, 진정서 발송 등을 통하여 왜곡된 사회제도를 사정하고 변화를 촉구하여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일반상담 성폭력 피해에 관한 모든 상담전화, 면접, 서신을 통하여 심리, 법률, 의료상담 실시.
위기상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아 증거채취가 가능한 피해에 대한 24시간 위기상담.
열림터상담 지속적인 성폭력에서 벗어나고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

교육

상담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 각 단체, 직장, 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차원에서 특강 실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어린이 성폭력 예방비디오 <내용은 내가 지켜요>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비디오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을 제작, 판매.

조사연구

상담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료집 발간. 성, 상담, 성폭력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

홍보출판

소책자 <열림터>를 발간, 피해자들이 더욱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포.

대외협력

성폭력 근절과 제도적 변화를 위해 타 단체와의 연대활동. 김보은·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주한미군에 유언이 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의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

국제협력

각국의 관련단체, 기관과 정보와 자료를 교류하고, 국제 회의에 참여하여 성폭력근절을 위한 연대활동.

성폭력 위기센터는,

- 93년 12월 13일 개설.
-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피해 여성들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24시간 운영.
- 성폭력 피해 직후 엄청난 쇼크로 혼란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확보와 외상치료, 성병이나 임신방지를 위한 의료적 조치.
- 법률적으로는 가해자 식별을 위한 법적 증거자료 확보와 법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며 수사, 기소, 재판의 과정에 동행하여 피해자를 지원.
- 현재 70 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급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증거물 확보, 가해자 검거 등의 성과.

내일을 여는 열림터

일시: 1995. 10. 24(화) 오후 2시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교육장

열림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열림터는 성폭력 피해여성의 파란치로서 94년 9월 문을 연 이래 근친강간 등 지속적으로 성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을 일정 기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공간입니다.
- 열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피해의식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 성폭력의 잘못이 가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인간으로서 보호받을 권리와 인격체로서 살 권리가 당당히 자신에게 있음을 긍정하게 됩니다.
- 열림터는 성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갈 곳이 없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해야 했던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 줄 것입니다.

상담

열림터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개별상담, 집단상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담활동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지원.

공동생활

열림터 내에서의 공동생활은 피해자끼리의 지대애를 키우는 장이 되며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며 정보교환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 보는 의미있는 시간 마련. 또한 비디오 관람, 독서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 보고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법률, 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활동

상담활동과 공동생활의 제공 이외에도 변호사 면담, 경찰·검찰연계 및 병문, 산부인과 연계 및 진정서 발급, 치료, 임신방지 조치, 정신과 전문의 피해자 면담, 임상심리 테스트, 가해자 면담, 피해자 가족 면담, 학교 담임교사 면담, 관할 교육청 장학사 면담(전 학년), 타 보호시설 연계기관장 면담 및 병문 등의 지원. 경찰이나 검찰의 피해자 심문 시 피해자 심리상태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열림터 상담원이 피해자 진술서 동석.



아름다운 사람

조재도

공기 같은 사람이 있다
편안히 숨쉴 땐 있음을 알지 못하다가
숨막혀 질식할 때 절실한 사람이 있다

나무그늘 같은 사람이 있다
그 그늘 아래 쉬고 있을 땐 모르다가
그가 떠난 후
그늘의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다

이런 이는 얼마 되지 않는다
매일같이 만나고 부딪히는 게 사람이지만
위로를 주고 편안함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은 몇 안된다

세상은 이들에 의해 맑아진다
메마른 민둥산이
돌 틈에 흐르는 물에 의해 윤택해지듯
젖빛 수평선이
피처럼 걸린 노을에 아름다워지듯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은 세상을 덜 무서워한다

크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폭력상담소 특별후원회를 소개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94년 개소 이래 4년여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우리 나라 최초의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서 그 기본적인 위상과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는 일반회원을 비롯하여 이사, 특별후원회원 등 각계 인사들의 재정적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소의 기본 프로그램과 위기센터, 열람터 등의 시설의 운영과 확충, 그리고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재정적인 상황으로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후원을 목적으로 우리 상담소에 특별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고, 이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람터 후원의 밤 공연 '열린 마음, 열린 세상'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변화시키고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아래 본상담소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한 걸음씩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소는 성폭력문제를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취지를 살려 이론과 실천을 함께 하는 연구소를 비롯, 이러한 결과물을 대중에게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출판기관, 그리고 일반인과 전문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한 몸을 이루는 종합 성문화센터를 세우기 위한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우리의 착박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아들이 땀흘려 만들어 낸 결실입니다. 상담소가 더욱 더 크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상담소와 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후원회에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후원회장: 김미라

특별후원회원: 고진숙, 김선희, 김양래, 김유아, 김은숙, 명우희, 박영자, 박창자, 박춘화, 신상호, 신정자, 신진경, 유국영, 이경희, 이선이, 이숙환, 이영자, 임윤수, 이병관, 이은정, 장명숙, 정옥희, 조동순, 조정임

도움 주신분

“
열림터 후원의 밤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습니다.
이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열림터가 밝은 사회의
커다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 부인
손 명 순

문 해 란 의료법인 복심자 의료재단, 원장
문 선 경 환경운동가
윤 경 연세 산부인과, 원장
장 철 우 장철우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찬 운 신화법무법인, 변호사

조 영 황 신화법무법인, 변호사
민 응 기 함춘 여성클리닉, 원장
권 규 대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상 경 변호사

성폭력상담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을 치하하며
이 행사를 축하합니다.

공증인가 청조 법무법인

구성변호사
최은희, 이정일, 이재훈, 김중성, 김근, 강기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23 대우빌딩 3층, 7층, 11층
전화: 508-7746(이정일변호사실), 508-4422(이재훈변호사실), 564-2496(김중성변호사실), 555-4030(강기원변호사실), 562-9062(공증실)
FAX: 562-0958(이정일변호사실), 508-1474(이재훈변호사실), 564-2497(김중성변호사실), 555-3575(강기원변호사실) 566-8311(공증실)

인천 남구 주안 6동 972-1 동산빌딩 211호
전화: 032)422-3873 FAX: 032)422-3874

정동철 의원
신경과/정신과

전화: 424-5464 FAX: 424-2059

“마음의 건강은 행복의 재산”

서울치과병원

병원장 민 병 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4-13(소망교회 옆)

Tel.547-7708/9 Fax.549-2518

서울치과병원은

교정과, 치주과, 보철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치과병원의 치료개념

1. 환자의 불편을 최단시간에 최선의 치료로 해결할 것입니다.
2. 철저한 소독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3. 모든 환자를 '가정의' 개념으로 돌볼 것입니다.
4. 계속적인 R&D(연구개발)을 통하여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새이름-쥬리아화장품

쥬리아의 앞선 감각은 유행을 선도합니다.

쥬리아의 아름다움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쥬리아의 정신은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쥬리아화장품

Olga Boutique

입구정동 현대백화점 건너편에 위치한 "올가" Boutique는 30대부터 50대 여성들을 위한 여성용 Fashion 매장입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의 이탈리아 수입브랜드 BEPPE BONDI를 중심으로 고객이 선호하는 여러 유명 브랜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핸드백이나 액세서리 소품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주기도 합니다.

BEPPE BONDI는 중간유동을 겨냥하지 않고 저수입이므로 가격도 부담 없도록 배려했습니다.

정장 투피스 53만~92만원선이고 원피스는 42만원선, 나트 종류는 16만원선, 액세서리 소품은 5만원 수준입니다.

매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Tel. 543-7742/3 입구정 현대백화점 건너편 보디첼러빌당

늘 푸른 건강을 아낌없이 주는 한숲으로 오십시오.
건강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 수영
- 헬스
- 에어로빅
- 대중사우나
- 볼링
- 골프

HANSU SPORTS CENTER
한숲스포츠센터

“언제나, 한결같이”

박금자 산부인과



저희 병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모든 직원이
환자의 입장에 서서,
환자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산부인과

여성종합건강검진센터 / 여성불임연구소

서울 양동포구 대림동 999-3번지
Tel. 846-1503, 841-5496, 831-2775
상당, 847-4997 Fax. 849-6388



동인천길병원



남동길병원



여성클리닉



심장센터



양평길병원



철원길병원



백령길병원



가천인력개발원



인천길병원

財團理事長 李 吉 女

吉 女 病 院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8
☎ (032) 460-3114, FAX (032) 467-9302



Re,
Rebecca Choi Yeon Ock

'95 AUTUMN & WINTER FASHION TREND

서로다른 개념의 Mix로
새로운 활력을 주며
Natural을 가미한 변화있
는 여성미를 추구.
조화와의 질체를 통해서
얼어지는 페미니즘의 반
영, 새로운 방법과 가공기
술에 의해 재구성된 향수
적 경향, 그리고 장식적인
요소와의 결합등이 전개된
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자연 선진국을 꿈꾸며

우리나라의 현재 숲은 1년간
소방청에서 해가 넘는 물을 저장합니다.
확실히 자연 나무 1헥타르는
한 사람이 2년간이나 숨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지요.



나무가 천연의 다목적용이지 산소공급기인
생물입니다. 우리의 생활 깊숙이 뿌려져 있고 있는 나무의 혜택-
나무는 물과 산소를 주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나무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직
적습니다. 숲이 풍성해 보아도 우리의 산이지만
대부분은 20%이 채 안된 어린 나무들-
백년, 천년을 키우는 자연선진국의 나무에 비해
아직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에 필요합니다.

미래의 자연을 가꾸어 갈 아이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나무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세요.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는 마음이
바로 내가 키울 수 있는 나라의 경쟁력-
백년 후에도 천년 후에도
나무가 나라를 키웁니다.

대한민국 자연 재민을 위한
유한킴벌리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 여가
성평등
도서관
여가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이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
도서관 여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나무가 나라를 키웁니다